

## PA-049

**충북지역 벼 출수생태형 종자보급종 품종별 표준육묘 기반 구축**이채영<sup>1\*</sup>, 최예슬<sup>1</sup>, 이희두<sup>1</sup>, 김익제<sup>1</sup>, 이청희<sup>2</sup>, 김정곤<sup>1</sup>, 우선희<sup>3</sup>Chae Young Lee<sup>1\*</sup>, Ye Seul Choi<sup>1</sup>, Hee Du Lee<sup>1</sup>, Ik Jei Kim<sup>1</sup>, Cheong Hee Lee<sup>2</sup>, Chung Kon Kim<sup>1</sup>, Sun Hee Woo<sup>3</sup><sup>1</sup>충청북도농업기술원<sup>2</sup>국립종자원 충북지원<sup>3</sup>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<sup>1</sup>Chungbuk Agricultural and Extension Services, Cheongju 28130, Korea<sup>2</sup>Chungbuk branch office of Korea Seed & Variety Service, Jecheon 27157, Korea<sup>3</sup>Dep. of Crop Science, Chungbuk Nat'l Univ., Cheongju 28644, Korea**[서론]**

충북지역은 중부평야지, 중북부중산간지, 남부중간지로 벼 재배지대가 구분하고 있으며, 중부평야지와 남부중간지는 중생 중부부터 중만생종, 중북부중산간지는 조생종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출수생태형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다. 벼 종자보급종의 제품 균일화를 위하여 충북농업기술원과 국립종자원과 협업을 통한 표준육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**[재료 및 방법]**

충북지역에서 2019년에 생산된 벼 보급종 정선제품 소독과 미소독 종자 추청, 삼광, 하이아미, 오대 4품종을 사용하였다. 3월 하순경에 32℃에서 3일간 침지하고 1~2mm 정도 최아되었을 때 모판 상자당 180g을 파종하여 28℃의 출아실에서 3일간 두고, 파종일로부터 25일 후에 초장, 뿌리매트형성정도, 입모율, 출아율, 출아정도, 키다리병 이병률을 조사하였다.

**[결과 및 고찰]**

벼 출수생태형별 조생종 오대는 제천시에서 보급종 생산을 하는데 소독과 미소독 종자간에 초장과 뿌리매트형성, 출아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미소독 종자의 출아율은 97.2%로 소독 종자보다 4% 정도 높았으나 키다리병 이병율이 2.5%로 소독종자 1%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키다리병이 감염되는 출수기에 잎집무늬마름병 약제로 보급종 생산 포장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. 중생종 하이아미는 소독종자가 초장이 22.2cm로 미소독 종자보다 더 크고 출아율이 2% 더 높았는데, 소독과 미소독 차이인지는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. 중만생종 삼광과 추청은 소독종자가 출아율이 98% 이상, 입모율이 85%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. 조생종 오대를 제외한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미소독 종자보다는 소독 종자가 출아율과 입모율이 더 높은 경향이였다. 키다리병 이병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체적으로 포장 관리 상태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었다. 이번 표준 육묘시험을 통한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정확도와 신뢰도 제고로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여 출수생태형이 다양한 충북지역의 보급종 종자생산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
**[사사]**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(과제번호: PJ01508306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주저자: Tel. +82-43-220-5552, E-mail. metmega@korea.kr